

韓·日 文化交流史의 새로운 發掘資料

任 孝 宰*

I. 序 言

이제까지 先史時代에 있어서 韓·日 文化交流 關係 研究는 地理的으로 가까운 九州 地域에 局限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¹⁾ 그러나 '94년 6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日·韓交流基金 재정후원으로 九州에서 北海道까지의 광범한 학술조사에서는 새로운 相關資料가 적지 않게 출토되었고, 또한 韓國側에서도 새로운 發掘資料가 축적됨으로써 이제까지의 韓·日 文化交流 關係 研究는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본고는 이렇게 새로이 發掘된 資料의 分析을 통하여 韓·日 文化交流 關係를 살펴 보는데 목적이 있다.

II. 文化交流 關係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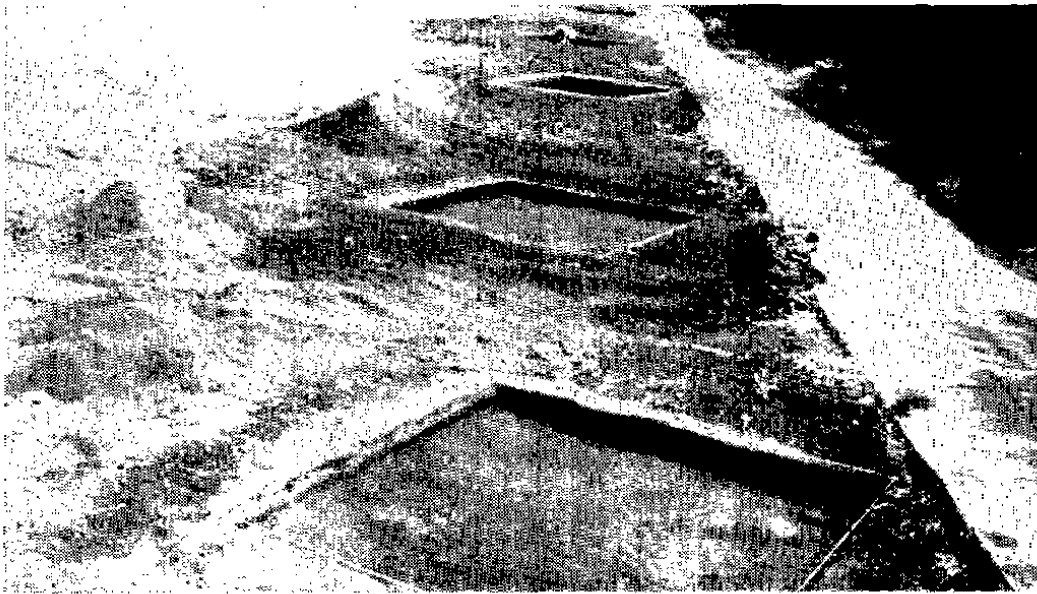
1. 韓國의 最近 發掘資料

대한 해협을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제주도 고산리에서의 最近 發掘成果는 매우 注目된다. 이것은 구석기가 끝나는 지금부터 1만 2천년 전 이후부터 신석기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8천년 사이에 不分明했던 우리 歷史의 空白期를 解明할 수 있는 강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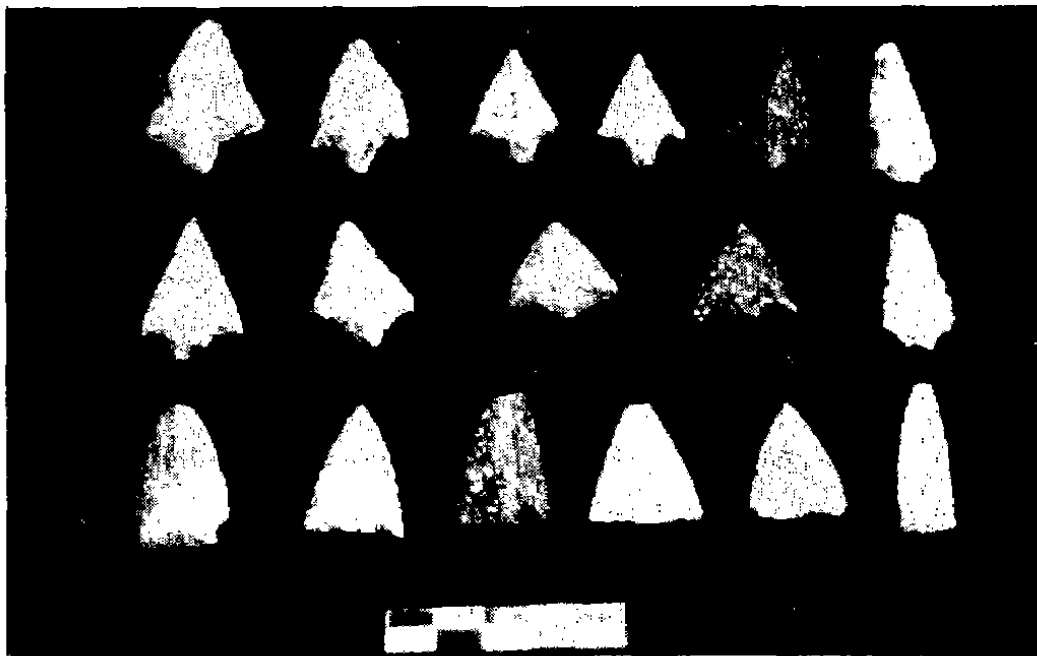
* 서울大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 『考古學 ジャーナル』 NO. 183 特輯 「日·韓 文化交流の考古學的 視點」, ニューサイエンス 발행, 1980.

任孝宰, 「新石器時代の 韓·日 文化交流」, 『韓同史論』 16, 한국국사편찬위원회 刊,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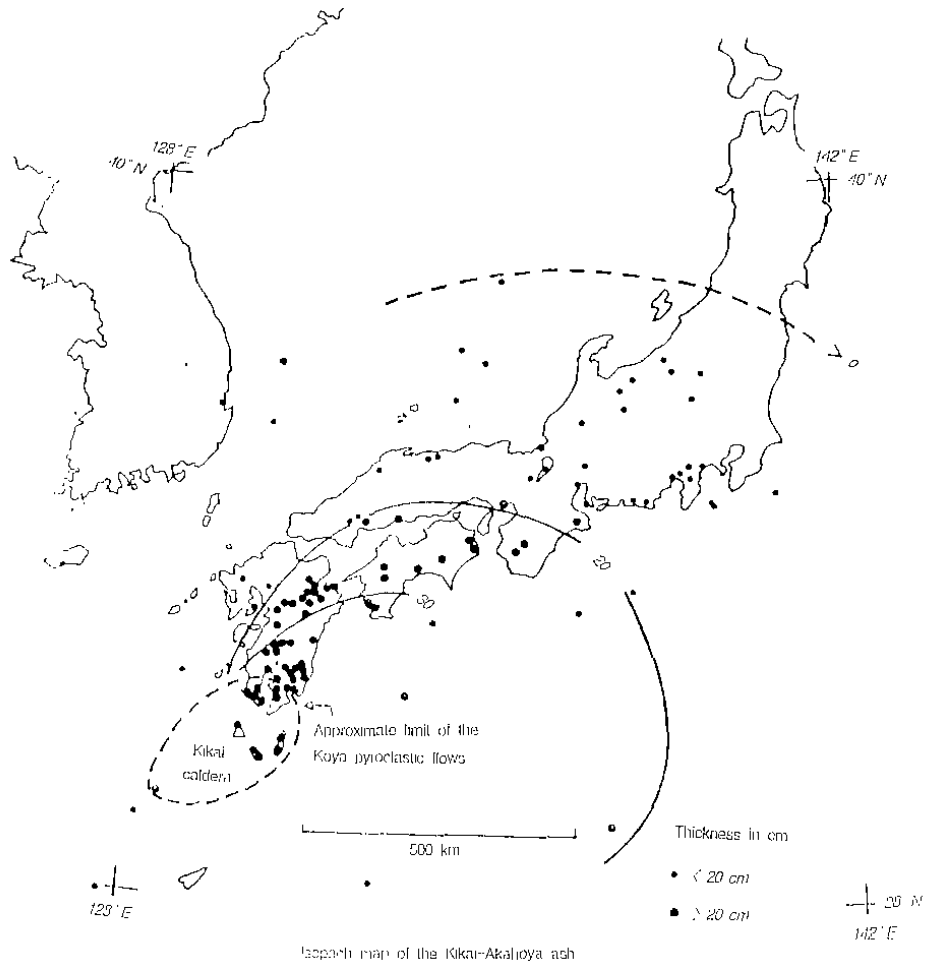
(圖 1) 화산재로 형성된 고산리 유적 발굴 전경



(圖 2) 제주도 高山里 출토 타제 소형 돌화살촉

물관팀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3526번지 주변 해안도로 예정지 일대에서 1994년 6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발굴조사 결과(圖 1), 도합 육천 오백점의 석기와 토기 파편이 채집되었다.⁽²⁾

(2) 1994년 8월 이청규 교수의 현지발굴설명자료 및 고재원 「제주도 고산리 세석기 문화유적」 하구 제4기하회 1994년 9월 3일 발표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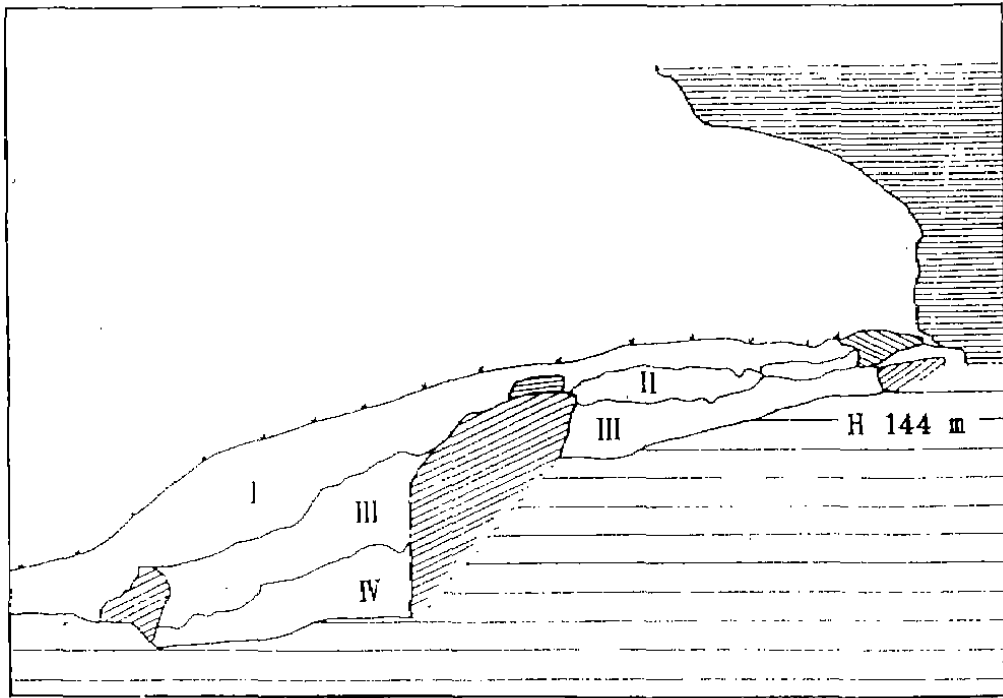
(圖 3) 키카이 아까호야 화산재 분포 범위

이중에는 한국 본토에서는 보기 어려운 正三角形,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소형 돌화살촉이 4백 4점이나 포함되어 있고(圖 2) 문양이 없는 갈색 토기편 50여점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화산재층으로 형성된 이 유적의 유물포함층 중 유물들은 한결같이 黃褐色의 기카이(鬼界) 아까호야 화산재층 아래에서 출토되고 있다.

B·C 6800년 前의 이 아까호야 화산 폭발은 九州내에서도 가장 強力했던 것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그 재층이 쌓인 것이 확인된다(圖 3).

이 화산재는 우리나라 동해나 인도지나 바닷속에서도 보링 실험결과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든 물론 한국에서도 그 화산재층이 발견되고 있다.⁽³⁾

(3) 咸尾英仁, 「南九州の火山活動とテフロ・クロノロヅ」, 『火山炭と考古學をめぐる 諸問題』 III, pp. 59-67 柳菴文化財研究會 1987



(圖 4) 梧津里 層位 상태

이와 흡사한 소형 타제화살촉은 長崎縣 北松浦郡 吉正町 福井 洞窟 제7층에서 나오고 있고, 제3층에서는 細石刃鏃이 나오고 있는데 그 年代는 B·P 12400±300이다. 또한 日本 愛媛(애히매)縣 美川村 上黑岩(가미구로이와) 6층에서도 고산리와 恰似한 돌화살촉과 갈색토기편이 多數出土되었는데 방사성 탄소 측정 年代는 B·P 10085±320으로 나왔다⁽⁴⁾ 이처럼 高山里出土 유물류는 이제껏 韓半島 本土와는 區分되는 文化양상으로 고산리 年代는 적어도 韓國 最古의 강원도 오산리 新石器 시작 이전인 B·P 8천년에서 구석기가 끝나는 무렵인 B·P 1만 2천년 사이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보이는 소형 화살촉과 함께 나온 갈색토기류는 무문양으로 토기를 빚을 때 짚을 混入한 흔적이 보인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정형화된 빗살무늬토기문화 발생 이전에서 구석기시대가 끝나는 시기에 해당되는 문화요소로서, 이를 근거로 「古新石器」 단계를 새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계의 해명은 바로 이제까지 不分明했던 韓國史의 공

(4) 江坂輝彌 「繩文文化の 出現」, pp. 47-61, 『新版考古學 講座』 3, 雄山閣, 1978. 江坂輝彌·岡本健兒·西田榮, 「愛媛縣 上黑岩陰」, 『日本の洞穴遺蹟』, 日本 考古學協會 洞穴調査委員會. 平凡社, 1967.



(圖 5) 梧津里 IV층 출토 條痕文系 土器



(圖 6) 柏原出土 土器

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있어서 자연환경은 韓·中·日 三國이 육지로 연결 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韓·日간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쫄쫄리 유적은 운문사 계곡에서 발원하여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쪽으로 흘러가는 운문천가에 있다. 바위 그늘 내부의 높이가 2.5m 너비 15.5m 되는 新石器時代 주거지이다. 포함층의 깊이가 4m나 되는 곳도 있는데, 위로부터 4개의 층위로 구분되며(圖 4) 가장 아랫층에서 출토된 일군의 토기군은(圖 5) 층위상으로도 용기선문 계통의 토기보다 아랫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편년상 한국 신석기시대 초기(早期)층보다 先行되고 있다.⁽⁵⁾

야마자끼(山崎純男)氏가 發掘 調査한 가시하라(柏原)유적 F지점에서 出土된 一群의 土器들을 실견한 결과, 밑이 뾰족하거나 丸底에 가까운 형태로, 그 시문 수법에 있어서는 시문구에 일정 간격으로 우묵하게 파내어낸 것을 가지고 문질러서 무늬의 효과를 내고 있다.⁽⁶⁾ 施文의 方向은 斜向이며 토기 전면에 같은 문양이 시문되고 있고, 토기의 입술 부분에 각목(刻目)이 새겨진 것도 보인다(圖 6). 이

(5) 徐純男, 「梧津里 岩蔭 발굴 개요」, pp. 460-477, 제37회 全國 歷史學 大會 發表 要旨, 1994.

(6) 山崎純男, 『柏原 遺蹟群』福岡埋藏文化財 調査 報告書 第190集, 1988.

처럼 토기 표면에 이런 시문구를 가지고 토기 표면을 문질러 문양의 효과를 내는 수법은 B. C. 5500년 前後하여 큐슈 일대를 포함, 일본 각지에서 발견되는 조흔문(条痕文) 계통의 토기에서 볼 수 있다.

2. 日本에서의 最近 發掘資料

韓國 新石器時代 文化에 영향을 받은 소바따(會畑) 土器 관계 유적 중, 1987년 소바따 유적에 대한 대규모 발굴조사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려졌다. 그후에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그중 對馬島 上縣町 夫婦石 유적 출토품이 注目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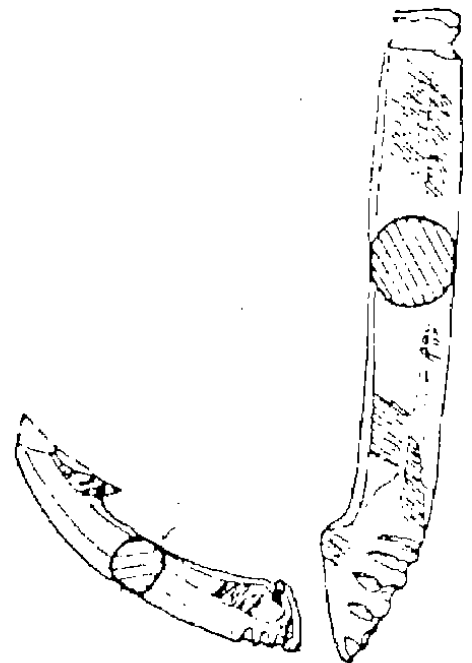
13,000㎡나 되는 유물포함층의 일부는 이미 바닷물에 잠기긴 하였으나, 1988년 11월에 이곳 개발에 앞선 기초조사와 그후에 최근 長崎縣 教育委員會의 學術 精密調査 결과, 제Ⅲ층에서는 繩文 中期에 속하는 阿高式 土器와 빗살무늬 토기, 그 아래의 제Ⅵ층과 Ⅶ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多數 出土되었다.⁽⁷⁾ 이 토기의



(圖 7) 對馬 夫婦石
出土 韓國系
빗살무늬 土器



(圖 9) 모야(大矢) 출토
石製 結合式 杼시촉



(圖 9) 한국 오산리형
結合式 杼시

(7) 副齋和明 「對馬にわたつた 櫛文土器人」, 『季刊 考古學』 第39號, 1991.

口緣부분은 直立으로 끝나고, 口緣부위와 기복부위를 각각 구분하여, 口緣部에는 짧은 斜線列을 口緣과 평행하게 五列을 두르고 있고, 아래에는 魚骨文을 施文하되 南海岸 甑죽밑 빗살무늬토기에서만 보이는 太線文과 똑같은 것이 보인다(圖 7). 이것은 한국 남해안 빗살무늬토기인이 사용하던 것이 그대로 유입된 것으로, 이제까지 日本 영토 내에서 발견된 韓國系 新石器土器 중 가장 명확한 것이다.

1989년과 1992년 二次에 걸쳐서 熊本縣 本渡市 本渡町大矢에 있는 오야(大矢) 유적을 발굴한 결과, 表土(1층)부터 맨 아랫층의 8층까지의 8개로 구분된 유물 포함층이 노출되었다. 위로부터 3층에서는 돌 낚시축 1個가⁽⁸⁾ 出土되었다(圖 8). 石質과 형태는 강원도 오산리 발굴에서 채집한 것과 흡사하다(圖 9).⁽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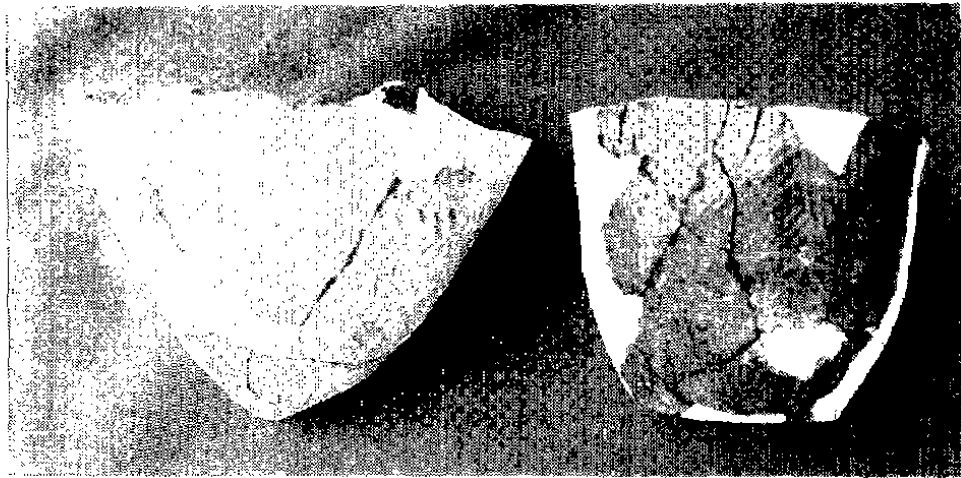
日本 東北部 靑森縣 우리바(賣場) 繩文土器 유적은 지난 1979년, '80년, 82년, 84년 도합 4차에 걸쳐서 발굴 조사하였다. 이것은 一般國道 45號線이 지나가는 靑森縣 하찌노에(八戶市) 高館 부근의 교통 완화를 위한 계획의 하나로 bypass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긴급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馬淵川과 海岸이 合流되는 標高 約 20m 斜面에서 傳統的인 繩文土器와는 異質的인 토기가 다량 출토된 것이다.⁽¹⁰⁾ 6월 25일~28일, 그리고 7월 6일~10일까지 모두 2차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고, 出土 遺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기의 器形을 알 수 있는 完形에 가까운 빗살무늬토기는(圖 10) ① 底部가 甑죽밑이며, 口緣부는 깨어졌으나 그 剖面을 보면 直立口緣으로 끝나고 있어 韓國의 典型的인 甑죽밑 빗살무늬 형태인 포탄형이고, ② 口緣部에는 짧은 短斜線列을 두른 剖面이 보이는데, 口緣部에 짧은 斜線列을 두르고 그 아래 부위에는 魚骨文을 새긴 것은 韓國 빗살무늬토기와 흡사하며(繩文土器에는 部位에 따른 서로 다른 文樣要素 施文手法이 없음), ③ 施文技術上에 있어서 日本 新石器 土器의 특징인 繩文式이 아니고 文樣 施文具로 새겨서 文樣 效果를 나타내는 沈線

(8) 山崎純男外, 『大矢遺蹟』, 本渡市 教育委員會, 1993.

(9) 任孝宰·權鶴朱, 『鰲山里遺蹟』, 서울대학교 考古人類 總간 9冊,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3.

(10) 靑森縣 教育委員會, 『売場遺蹟發掘調査報告書』, 靑森縣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93輯, 1984.



(圖 10) 靑森縣 우리바 遺蹟 出土 土器

(左) 한국계 뽕죽밀 토기 (右) 시베리아계 납작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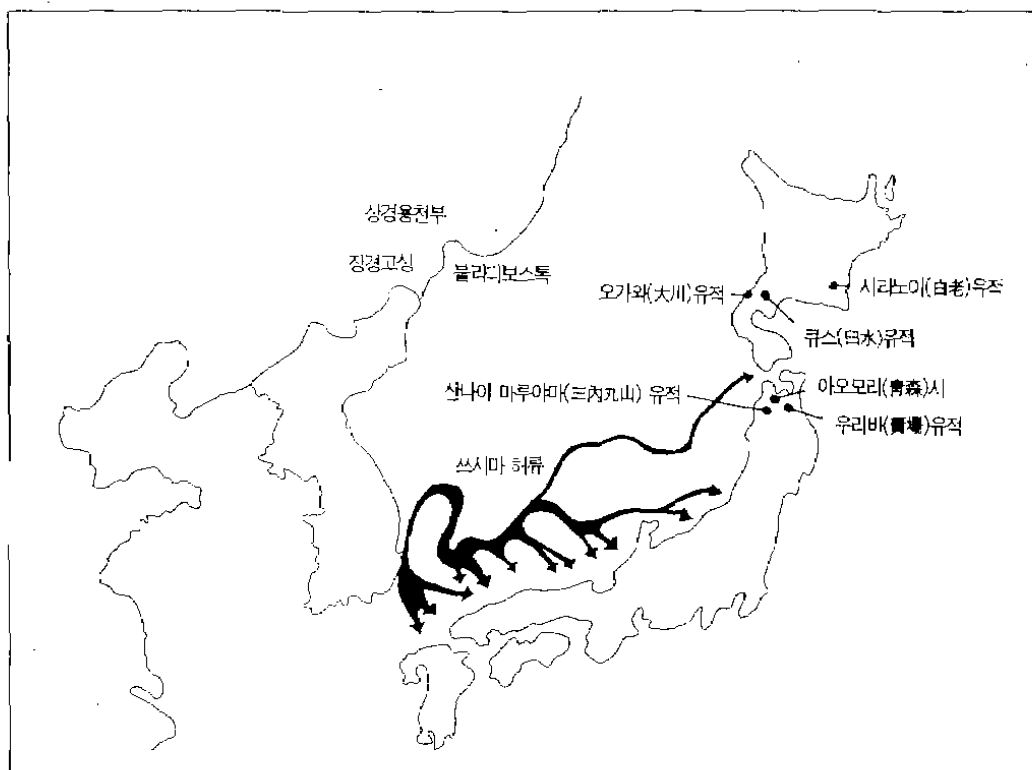
式이며 ④ 胎土에는 고운 細砂를 섞고 있으며 石英, 雲母를 混入하고 있다. 토기 표면의 두께는 7~8cm이며, 黃褐色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系統의 土器는 日本 繩文文化(조문문화) 傳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異質的인 것으로 胎土, 器形, 무늬, 시문기술 등의 全體的인 特徵이 韓國의 빗살무늬토기와 類似하다.

이들은 B. C. 4000년 이전에 속하는 繩文 早期층에서 出土된 것이다. 이들은, 종래 B. C. 3000년을 전후하여 九州를 중심으로 한 한·일 신석기 문화교류설 보다 적어도 1,000년 정도 앞선 시기에 日本 本州에 韓國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立證하는 重要 資料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靑森縣內 오모데 다데(表館) 유적을 포함한⁽¹¹⁾ 여러 繩文 유적에서도 빗살무늬토기가 발굴된 것이 있기 때문에, 日本 繩文文化 形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의 沿海州, 韓半島 東北部에 분포되어 있는 빗살무늬토기는 土器 底部가 한결같이 평저형 토기임을 감안할 때, 침저형 빗살 무늬토기가 그곳으로부터의 流入될 가능성이 성립되기 어렵다. 日本海洋學會의 海流研究報告書에 의하면⁽¹²⁾, 韓國 南海岸에서 韓國 東海岸을 따라 38도선까지 北上한 後, 東海를 橫斷하여

(11) 靑森教育委員會 『表館(1) 遺蹟』 靑森縣 埋藏文化財 調査報告書 第120集, 1988.

(12) 『日本海洋學會 海流研究報告書』 1905年



(圖 11) 對馬 해류의 흐름

靑森에 도달하고 있는 흐름을 새로이 확인하였다.(圖 11) 이러한 海流의 흐름이 韓國 빗살무늬토기 文化의 傳播와 깊은 關聯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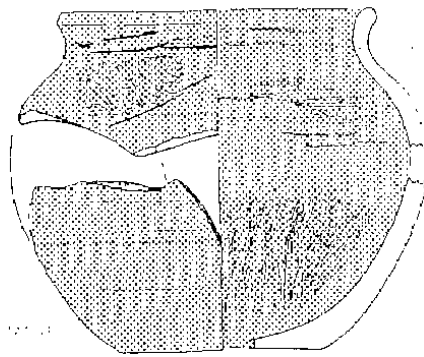
북해도 余市의 오가와(大川) 유적은 1989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을 실시하여 왔다.⁽¹³⁾ 9~10세기 전후의 것으로 보이는 竪穴 住居址 부근에서 출토된 黑色壺는 높이 12cm, 구경 11.5cm, 저부 지름 7.2cm로(圖 12, 圖 13) 이제껏 日本에서는 發見된 바 없는 이질적인 것이다. 土器의 표면은 마연을 해서 윤택이 나는 고구려 계통의 전통을 이어 받은 渤海계의 土器임이 분명하다. 渤海 영토 내에서 이러한 계통의 土器가 도처에서 發見되었지만, 이것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것은 上京 龍泉府의 남쪽에 있는 長東古城에서 찾을 수(圖 14) 있다.⁽¹⁴⁾

(13) 小嶋芳孝, 「中國 東北北方の渤海 土器 について—大川 遺物出土の黑色壺を考える」 『1993年度 大川遺蹟 發掘 調査 概報』 所收 北海道 余市町教育委員會刊 1994年 3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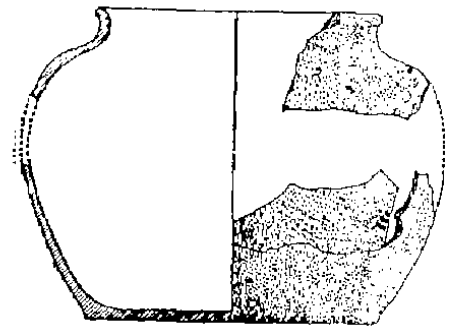
(14) 註 13과 同



(圖 12) 北海道 大川遺蹟
出土 渤海系 土器



(圖 13) 大川遺蹟 出土
黑色壺 實測圖



(圖 14) 中國 長東古城 出土
土器 實測圖(1/4)

『續日本書紀』나 『日本紀略』에는 [十一月丙申,出羽國言, 渤海國使呂定琳等六十八人漂着夷地 勅邊越後國依例洪給]이란 글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11월 달에 渤海 國使 呂定琳 일행이 漂流해서 北海道 어디에 도착하였기에 이들을 지금의 니가다(新潟)쪽으로 옮겨 대접을 하되 이전에 使臣처럼 하라는 내용이다. 결국 이런 문헌기록과 黑色壺자료의 배경과는 부합되는 중요한 歷史的 意味를 찾을 수 있다. 수 십회에 걸친 渤海 사절단들도 여름을 피하고 모두 그 이후 출발한 것을 보면, 최근의 海流 흐름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11월 이후의 對馬 해류는 북위 38°까지 北上하다가 다시 南下하여 靑森이나 北海道까지 흘러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3. 結 語

이상 살펴 본 것처럼, 最近에 와서 韓·日 양측에서는 그 交流 관계 자료가 축적되었다. 기원전 만년에서 6천년 사이의 韓國史의 공백은 제주도 高山里 자료에 의해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단계가 정형화된 한국 신석기 시작 이전의 것이므로, 고산리를 표준 유적으로 한 「古 신석기」 단계의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 있어서 日本 上黑岩과의 類似性이 보이지만은 앞으로 日本의 草創期 단계의 여러 문화 유물과의 폭넓은 비교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日本 東北部 靑森縣 売場유적에서의 韓國系 빗살무늬 토기의 출토는 이제껏 韓國과 九州지역에 국한되었던 交流 關係史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기원전 4,000년경부터 本州와의 交流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交流는, 발해시대의 동해 횡단 交流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동해를 횡단하는 해류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없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